

제3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결과보고

1. 개요

- 일시·장소: 2020. 9. 17.(목). 14:00~17:15 / 화상회의(대회의실 등)
- 참석자: 김영란 위원장 등 포럼위원(20), 전문가(3), 산림청 관계자(2), 연구진(2), 농특위 사무국(3) 등 31명

* 김영란 위원장, 발제자 및 토론자, 사무국 관계자 등 9명 대회의실

- 주요 내용: 주제발표 및 논의, 포럼운영 관련 보고 등
 - (주제) 여성농어업인의 직업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2. 주요 내용 및 결과

① (기조발제) 농어업·농어촌 교육의 성인지적 현황

《요약》

[기조 1] 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 성별평가. 농식품부 오미란팀장

- 농림사업 중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20년 11개
 - * 과제와 성평등 목표 실현을 위한 적합성 미흡,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없음,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영역의 정책과제 부족
-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19) 9개/3,525억원 →('20) 10/3,709
 - * (개선사항) 평가결과를 성과목표에 반영해야 하며,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여성의 참여율은 '농업계 학교 지원사업(46%)'에서 높았으며, 국외훈련(31%),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활용 및 교육사업(31%)에서는 낮았음
 - * 여성 참여의 제약요인: 여학생 비중이 낮거나 실습중심, 자부담률(30% 이상) 등임
-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성과지표 개선, ② 법령 또는 지침을 개정하여 여성비율, 성별분리 통계생산 등을 반영, ③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과목 개설, 교육 돌보미 서비스 연계 및 관련 예산확보 등 필요

※ [발표자료 첨부] 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 성별영향평가서

[기조 2] 어업·어촌 교육의 성인지적 현황. 해수부 이정미사무관

□ 남성 어업인의 경우 다양한 교육 기회가 있는 것에 비해 여성 어업인의 경우 교육 기회가 한정

- 어업인 교육에서의 여성참여비율 ('18) 7.6% → ('19) 9.1%
 - * ('19년, 여성 참여율) 어촌지도자 교육 3.7%, 수산업경영인교육 20.8%,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48.8%. 수산경영 대학과정 26.3%,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2.6%
- 사업지침에 여성 참여비율 명시*, 성인지 예산 관리사업**인 경우에 타 교육보다 참여비율이 높음
 - * 수산업경영인교육 지침에 20% 이상 선발
 - ** 어업인단체 역량강화(어촌지역개발리더): ('18) 59.5%, ('19) 48.8%

② (1주제) 여성농업인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 ▶ 발 제: 최윤지 위원(농진청)
- ▶ 지정토론: 김명화 박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조민욱 실장(농정원)

《요약》

- 여성의 인구비율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기술 수준을 강화해 농업 생산성 증대 필요
 - 아울러 여성농업인 직업지위 향상과 역량강화, 미래 농산업분야 적응을 위한 경영·직업역량도 필요
-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역량강화
 - 향후 미래 지향성 확보,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교육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설계, 여성농업인 교육현장 요구 반영 등 고려
- 국내외 인력개발 동향
 - (유럽)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별도 정책 없음 → 남녀차별 없음
 - (일본) 경영다각화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육성 교육 및 사업 혜택
 - (한국) '여성농업인 5개년 육성계획' 등 별도 지원정책
-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을 위한 보완 및 추진방향
 - 여성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및 보조장치 개발, 영농주체 분석에 맞춘 농업생산기술을 개발
 - 미래 유망직종 기반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업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적용, 직업역량 모델링 및 교육 우선순위 도출 등

- 여성농업인의 교육 욕구 역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직업역량 강화가 필요(김명화 박사)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 교육,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필요
 - 여성농업인 직업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구축, 교육 기회 및 수혜에서 남녀 균형적인 참여보장,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직업교육 관련 DB 구축 필요
- 여성농업인의 연령,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공(조민욱 실장)
 - 고령 여성농업인의 경우 신기술 보다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편이장비 활용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 실시
 - 청년 및 중장년층은 ICT 첨단기술 등을 접목한 신기술 활용 교육, 가공·유통·마케팅 및 농촌관광, 여성농업인 리더십 등 특화교육 필요
 - 귀농귀촌 희망 여성의 경우 정착-창업-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직업역량 강화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트렌드, 수요자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과 내용 및 방법 등 고려, 여성특화 교육 필요
 - 기후변화 이후 품종변화, 세무회계, 마케팅 교육 등 필요(이명자 위원)
 - 다양한 여성특화 교육, 여러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식(스마트폰, TV 등), 교육 참여를 위해 아이 돌봄 도우미 배치 등 필요(오순이 위원)
 - 소규모 찾아가는 교육, 교육예산 확보(김옥임 위원), 여성멘토 육성 필요(최윤지 위원), 농지 등 공동명의 하도록 가족경영협약 등 필요(강부녀 위원)
 -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교육 연구회 조직, 교육의 효과를 위해 교육 후 6차 산업 등 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지원필요(정은미 위원)

③ (2주제) 여성어업인 교육의 현실과 당면 과제

▶ 발제: 이창수 위원(수산경제연구원) ▶ 지정토론: 도재은 과장(수협)

《요약》

□ (현실)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은 초보 단계임

- (교육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협중앙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 (한계점)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일회성·행사성 교육, 정규교육과정 내 여성어업인 교육 부재,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 전용 교육관 부재, 교육예산 및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

□ (과제) 여성어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 노동력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 3가지 과제를 제안

- ① 여성어업인의 인재상 정립, ② 전문화·체계화된 교육체계 구축, ③ 전문교육 후 지원체계 구축

- 현실 가능한 교육계획 수립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여성어업인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 구축(도재은 과장)
 - 여성어업인의 경우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어업특성상 교육 참여가 어려우며, 일회성 강좌 중심으로 교육의 연속성도 부족
 - * 조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소 36가지 이상의 전문노동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교육 필요
 -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목표와 로드맵 수립, 교육과정 개발, 사후관리 등 체계화, 어업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거점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
 - 남녀 어업인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함
- 여성어업인이 수협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경우 보고 듣고 배우는 현장 체험교육이 될 수 있음(안창희 위원)
 - 귀어인에게 어업특성상 이론교육, 실습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적절한 멘토 필요함. 멘토 수당의 현실화, 현장에 맞는 교육 필요(이순미 박사)

《종합 의견》

- 소비자 입장에서 여성특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교육도 중요, 농고 및 수산고에 여성 진학률이 낮는데 미래 인력양성 차원에서 진로교육,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한 목소리 필요(조완석 위원)
 - 교육 받은 내용을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 소통역량 증진 교육 등 필요
- 여성만 특화한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차별 고려
- 어업인 안전교육, 농작업 사고 등 부부동반 교육의 의무화, 여성에게 특별히 필요한 안전교육 등 시행(오순이 위원, 김영란 위원장)
- 여성농업인 교육이 필요.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정원에 위탁한 교육 예산은 2억에 불과하여 교육 예산의 확대 필요(김진환 위원)
- 추후 워크숍에서 산림청의 산림분야 여성 일자리와 교육 등을 공유(김종근 팀장)
- 농진청 교육 중 '식품가공 프로그램' 수요가 큼, 90개 시군에서 창업보육 프로그램(창업부터 마케팅까지의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럼위원과 현장 방문의 기회를 마련하고 싶음(박정화 과장)

4 (보고) 연구용역 추진계획, 작은 국제 포럼(안)

- (연구) 미래 여성농어업인은 청년여성에게 중점을 두어 진행하기로 함, 중간보고 등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겠음
- (작은 국제포럼) 포럼 일자와 세부 일정 등 안내

3. 향후 주요 계획

- 작은 국제포럼 개최(10.15, 웹포럼)
- 제4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11월초), 워크숍 개최(11월말)

* 포럼주제: 삶의 질 향상

【붙임】 화상회의 채팅내용

- (오순이 위원) 찾아가는 영농개선교육이 현장에서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 (소현주 위원) 최윤지 연구관님 발제 너무 좋았습니다. 미래교육 개발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후계여성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진환 위원) 발제 및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한여농에서는 창업교육과정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 전업농교육, 회계교육 및 농협리더 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예산자체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들을 말씀하셨는데, 농촌여성정책팀에서 위탁받은 농정원 예산이 고작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19 비대면 교육을 우리 단체에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PLS나 직불제 같은 정책전달목적의 교육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집합을 진행하던 교육에서의 양방성 교육효과는 비대면 교육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남식 위원) 농어업여성 교육은 연령대별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평등 및 권리 증진과 관련된 교육은 기획시 부터 연령대를 고려하여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어떨지요?
- (정은미 위원) 농업인 교육 종류는 지역별, 단체별 차이는 있지만 대단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이 일방적이고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소현주 위원)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 좋구요. 이번에 다루어진 내용이 구체적인 제도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임업인의 현장 임업교육도 어업인 교육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p47의 내용(여성어업인 인재상 정립/전문화·체계화된 교육체계 구축/전문교육 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순이 위원) 어업인안전교육이나 친환경교육 등 현장에 부부가 같이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 많습니다. 일부 교육은 부부가 반드시 동반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 (이수미 위원) 여성어업인이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3번째가 안전교육이었습니다. 농업에서도 농작업 사고가 늘어나고 노동 강도가 강한 농업과 어업의 특성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안전교육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농업과 어업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화 위원)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향상 교육 중 농촌여성의 식품가공역량을 키우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이 분야에 많은 수요를 반영하여 좀 더 체계화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주 위원) 다음 워크숍에서 여성임업인 발제기회를 주신다니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 (오순이 위원) 교육을 개설하면 대표적으로 남성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부부가 둘 다 참여하도록 강제해야합니다.
- (조완석 위원) 교육의 강제조항 동의요~
- (소현주 위원) 소비자와 생산자와 함께하는 소통교육 꼭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임산물 판로개척 교육과 숲 체험 교육에 꼭 초대하겠습니다.